



'성가정' 심순화 카타리나 作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 평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집회서 3,2-6.12-14

화답송



(후렴)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 - 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 - 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밭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콜로새서 3,12-2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복음 | 루카 2,22-40

성가 | 입당성가 [114] 예물준비 [107]

영성체 [105] 파견성가 [113]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박제우 김경희	배옥희 소피아 강혜숙 바울라
생미사	봉헌
김택영 알버트, 김혜숙 마리아 가정 이영애 레지나 가정 민재인 데레사 유기호, 진문자 가정 김동광, 김종선 가정 조성윤 바실리오 백승민, 진달래 가정 민정신 아폴로니아 박혜화 도미니카 본당 모든 교우의 영육건강 강호영 안드레아 가족의 영육건강 김가롤로 신부, 김효주 수녀 김영우 요셉, 강견대 마리아 부부	익명 익명 이은경 헬렌 익명 익명 복사단 대모 익명 익명 익명 익명 김지영 유스티나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 지향기도	성찬 봉사	복사
12/31	배수아	이태주	류유리	류유리	김종선	조바실리오 양글라라
01/01	정유진	강호영	민덕미	민덕미	유정옥	-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흠/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1월 친교실 봉사는 사목회입니다.

▶의무 축일, 천주의 성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교회 전례력에서 마리아와 관련되는 축일 중 주일과 마찬가지로 미사에 참례할 의무가 있는 축일은 성모승천대축일(8/15)과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12/8),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1)입니다.

1월 1일(월) 09시 15분 미사 의무축일

▶2024. 1/1(월) 새해, 천주의 성마리아 대축일

09시 15분 미사후 더 큰집, 원조에서 떡국 봉사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친교실 봉사 안내

1월	사목회
2월	요셉회, 성모회
3월	꾸리아
4월	학부모회
5월	연령회
6월	청년레지오
7월	청년성서모임, 청년찬양팀
8월	울뜨레아
9월	청년회
10월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풍물패(선교분과)
11월	꾸리아
12월	성모회,요셉회

▶판공 성사표

대림 시기동안 본당 또는 다른 곳에서 고해성사를 보신분은 사무실앞 박스에 '판공성사표'를 작성하시어 넣어주세요

▶고해성사 휴무 2023. 12/22~ 2024. 1/8

▶Youth 견진성사 교리반에 초대합니다~

대상: 6학년 이상~ 12학년까지의 영어권 청소년
견진성사일: 2024. 3/30(부활성야)
첫모임: 2024년 2/18(주일) 10:30am
문의 및 신청: Sr.효주 347-834-5784

“청소년의 웃음소리는☺ 하느님의 음악입니다. 卍”
청소년 한사람, 한사람을 교회로 초대해 주세요~

▶브루클린 노숙자 보호소에 의류 기부

드라이클리닝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 수거되지 않은 드라이클
리닝 의류가 있으면 노숙자 보호소에 기부해 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
간 기부해주신 분들 덕분에, 노숙자 보호소 거주인들이 단정한 비
즈니스 복장을 입고 면접과 일자리를 구할수 있었습니다. 세금공비용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문의: 347-834-5784 또는 347-247-4139

▶교무금

2023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교무금을 마
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교우분들의 협력으로 공동
체가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청년, 가톨릭교회 교리서 필독반 모집

대상: 가톨릭 교회의 교리공부를 원하는 청년
일시: 월 1회 토 3pm. 신청: Fr.가롤로

▶제31차 미동북부 청년 성서모임 창세기 연수생 모집



대상: 창세기 과정 마친 청년들
날짜: 2/9(금)~11(일)
장소: Sacred Heart Center, NJ
문의: 김진섭 야고보 201-912-7577

▶청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기도, 봉사, 따뜻함이 있는 곳!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
활동: 매주 회합을 통한 기도 및 활동나눔, 봉사, 본당 협조등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문의: 단장 정다경 마리아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 원천Pr./ 매주일 11am
문의: 단장 이기원 스테파노 929-208-5147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FLORA YANG)
무역 수입 IMPORT & 수출 EXPORT
657-337-5130
marketing@czlusa.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 nycacu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더큰집
TEL. 212-564-8238

WONJO New Wonjo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 1,2,3 FL, New York, NY
212-594-4963 전 스테파노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 347-840-2112
(32 St.- 33 St.) Fax :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광고주를 찾습니다.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24,330 단

가정은 하느님 사랑의 학교입니다

변승식 요한보스코 신부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전해 줍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 사이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가족의 사랑 속에 성숙해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하느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 빨리 변하는 세상, 물질 만능주의와 양극화, 그 외의 많은 요인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과 의미가 더는 유효하지 않으며, 그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바람직한' 가정은 그 안에 존재하던 질서와 미덕과 규범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현대의 거의 모든 어려움이 가정의 붕괴에서 오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과거의 가정과 이웃에는 <전원일기>의 존경과 사랑, <응답하라 시리즈>의 정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막장 아침드라마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확한 사실일까요?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로 이루어진 창세기의 첫 가족 이야기를 보면 가족 간의 갈등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왜 새삼스레 지금 와서 가정이 무너졌다고 하는 걸까요? 혹시 달라지고 무너진 것은 장유유서(長幼有序)나 부부유별(夫婦有別) 같은 유교적 규범 또는 호주제(戶主制) 같은 관습법으로 유지되던 기득권이 아닐까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부모님 일행을 떠나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사건을 전해줍니다. 사흘이나 어린 아들을 찾아 헤맨 부모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하지만 힘겹게 찾아낸 예수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해명을 했고, 부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야단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없고, 대신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루카 2,51)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가정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가족은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운 존재지만 타인이기에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인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을 익힙니다. 그 이상을 바라고 강요할 때 가족은 큰 고통의 원천이 되지만, 그 이치를 따르면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요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족에게서 배운 사랑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1코린 13,7). ☺

